

# 냉전의 전개와 일본공산당의 혁명노선 변경\*

최종길\*\*  
gilchoi67@hanmail.net

## <目次>

- |                  |                       |
|------------------|-----------------------|
| 1. 서론            | 3. '50년 문제'의 발생과 노선변화 |
| 2. 냉전의 전개와 전후 일본 | 4. 결론                 |

主題語: 일본공산당(Japanese Communist Party), 50년 문제(50-Year Problem), 분파투쟁(Sectarian Struggle), 냉전(Cold War), 민주주의(Democracy), 혁명노선(Revolutionary Route)

## 1. 서론

영화 「1987」을 보면서 이한열 열사가 연세대학교 교문 앞에서 최루탄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린 기억이 새롭다. 이 영화로 대표되는 386세대가 이제는 586세대가 되었다. 이제 곧 686세대가 될 것이고 이어서 사회에서 공적인 은퇴 시기가 다가올 것이다. 은퇴한 386세대의 자기 총괄은 어떠한 모습일까. 운동의 결과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고, 광주의 주범을 감옥으로 보냈으며,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촛불집회를 통해 2017년 3월 10일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하였다. 운동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운동을 견인했던 386 운동권 인사들의 내면세계로 이어졌는지는 의문이다.

유명 대학 출신 386 운동권의 다수는 교수,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 장관, 정부 혹은 민간단체의 장이 되어 한국 사회에서 '지도층(=기득권층)'에 들어갔다. 사회의 '지도층'이 된 그들 가운데 더 나은 사회변혁과 자기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은 극소수이고, 다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가정과 그 자녀들이 한국사회의 기득권 주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취득을 위해 '노력'한다. 끈적끈적한 욕망으로 가득찬 그러한 '노력'이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2079082)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HK+연구교수

세상에 드러나 혹시 비판이라도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며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었다고 항변한다. 자신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공적인 영역에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한다고 외치지만,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적인 영역에서는 무엇보다 욕망이 우선시된다. 공적영역에서 진행된 운동이 사적인 영역에까지 미치지 못한 것이다. 즉 운동이 사회를 변화시키긴 했지만 정작 운동에 참가한 개인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여기에 386세대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자신의 주체성은 무엇이며 사회의 최소단위 속의 민주주의는 어떠한가. 내 삶 속에 천착되지 않는 운동은 나를 바꿀 수 없으며, 나를 바꿀 수 없는 운동은 사회를 바꿀 수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열거한 운동의 성과가 내 속의 욕망으로 인해 언제 물거품으로 사라질지 모를 일이다. 이러한 성과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제 운동은 개인의 내면세계로 들어가야 할 때이다.

일본에서 진보집단의 사회운동에 대한 총괄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번은 1930년대 후반에 전쟁에 협력한 진보주의자들이 패전 이후에 자신들의 행동을 ‘전향문제’로 총괄한 것이고, 두 번째는 1960년대의 학생운동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부정’이란 논리로 제기한 것이다.<sup>1)</sup> 일본의 사회운동 경험을 총괄하면서 제기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기주체성과 조직 민주주의였다. 사회운동과 관련한 이 두 가지 개념을 살피기 위해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대상이 일본공산당일 것이다. 전향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공산당은 자신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반대하였으며 그 결과 옥중에서 18년의 세월을 보내야했다고 주장하면서 전향문제는 자신들과는 관계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민중들과 괴리되어 전쟁을 저지하지 못한 일본공산당의 책임을 추궁한다. 그리고 이들은 국가권력의 억압과 시대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켜내지 못한 내면세계를 되돌아본다. 자기부정의 논리는 60년대의 안보투쟁을 거치면서 일본공산당이 가진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와 외부의 힘과 권위에 의존하여 당을 운영한 비주체적이고 비민주적인 성격에 거부감을 가진 진영에서 제기한 ‘전공투(全學共闘會議)’운동의 결과물이다. 그 논리는 대학생이란 신분이 가진 사회적인 기득권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반권력 측에 서고자 하는 삶의 과정이었으며 내부적으로는 권력화 하는 일본공산당에 대한 비판이었다.

일본공산당의 이러한 조직문제는 냉전을 거치면서 외부의 힘 즉 소련과 중국 공산당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전쟁을 대비하여 일본공산당에게 내린 운동지침으로 인한 당내 분열과

1) 전향에 관해서는 藤田省三(1975)『転向の思想史的研究』岩波書店; 思想の科学研究会(1960)『共同研究転向』平凡社, 등이 있으며, 전공투의 자기부정의 논리에 관해서는 鈴木英生(2009)『新左翼とロスジェネ』集英社; 外山恒一(2008)『青いムーブメント—まったく新しい80年代史—』彩流社; J. ヴィクター・コシュマン(2011)『戦後日本の民主主義革命と主体性』平凡社 등이 있다.

극심한 분파투쟁으로 극명하게 나타났다. 일본공산당의 ‘50년 문제’로 통칭되는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과제는 결국 일본공산당이 가진 주체성과 조직 민주주의에 대한 것으로 귀결되었다. 패전 직후부터 사회운동이 하강국면에 들어서서는 70년 초중반까지의 일본공산당 연구는 대체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일본공산당의 정통성과 무오류성을 강조하는 연구, 두 번째는 일본공산당 내부에서 분리되어 나온 신좌익에 속하는 사람들에 의한 비판적 연구, 세 번째는 일본공산당 내의 비리와 부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연구이다.<sup>2)</sup> 소련연방의 해체 이후 소련공산당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과 더불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국립기록관리청(NARA)의 점령기 일본관련 문서도 공개되어 ‘냉전사’의 시각에서 전후 일본공산당연구도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sup>3)</sup> 그러나 ‘50년 문제’를 당시 동북아시아에서 전개된 냉전과 그 결과로써 발생한 한국전쟁과의 연관성 속에서 고찰하지는 못하였다. 즉 한국전쟁에 대한 소련과 중국 공산당의 전략구상 속에서 일본공산당의 전략 전술론의 변화를 논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냉전과 그 결과 발생한 한국전쟁이 일본공산주의 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를 통해 자기주체성과 조직 민주주의가 갖는 운동의 의미에 대하여 고찰한다.

## 2. 냉전의 전개와 전후 일본

### 2.1 냉전의 전개와 대일 점령정책의 변경

2차 세계대전의 말미부터 같은 연합국에 속한 소련과 영·미의 대립은 조금씩 현실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미·영·소의 수뇌가 모여 2차 대전의 전후처리를 결정한 포츠담회담이다. 이 회담에서 폴란드문제, 배상문제, 패전국에 대한 처리문제에서 소련과 영국은 강하게 대립하였다. 특히 유럽 각 지역에 대한

2) 첫 번째는不破哲三(2006)『日本共産党史を語る』新日本出版社 등 일본공산당 내부의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집필한 것으로 주로新日本出版社에서 출판된 것이 많다. 두 번째는小山弘健(1972)『戦後日本共産党史』加賀書房 등, 세 번째는立花隆(1979)『日本共産党の研究』講談社; 福富健一(2019)『日本共産党の正体』新潮社 등이 있다.

3) 새로운 자료를 활용한 전후 일본공산당사 연구에 대한 개략적인 정리는黒川伊織(2016)『戦後日本共産党研究の現段階』『第三次 季刊 現代の理論』第8号를 참고할 것. 그 외 下斗米伸夫(2011)『日本冷戦史』岩波書店; 福家崇洋(2013)『京都民主戦線についての一試論』『人文学報』第104号, 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를 참고할 것.

문제 예를 들면 불가리아와 그리스의 갈등, 유고슬라비아 티토정권에 대한 영·소의 대립, 루마니아에 있는 영·미 석유시설을 소련이 점령한 사실 등으로 갈등이 격화되자 미국 국무장관 번스(James Francis Byrnes)가 중재에 나섰다, 양국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포츠담회담은 지속될 수 있었다. 즉 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과정에서 소련은 자신들의 피해복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국경을 접하는 곳에 친소 세력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대립은 1947년에 발생한 3가지 요소로 인하여 세계적인 냉전으로 고착화된다. 첫 번째가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타 지역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3월 12일자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의 특별교시 즉 트루먼 독트린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원조를 시작하고 유럽지역에서 소련을 봉쇄하려는 정책을 취하게 된다. 두 번째가 1947년부터 51년까지 미국이 유럽 16개국에 실시한 대외원조계획 즉 마셜플랜이다. 미국의 국무장관 마셜(George Catlett Marshall)은 1947년 6월 5일 미국의 하버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전쟁 이후 파탄에 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부흥을 위하여 미국은 대규모의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은 전쟁으로 인하여 생산시설이 붕괴한 서유럽 각국의 경제를 희생시켜 사회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자본주의 국가의 부흥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여기에 대하여 소련은 동유럽 여러 나라의 재건을 위해 원조를 제공한다는 모로토프 플랜(Molotov Plan)으로 대항하였다. 이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강국이 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이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을 봉쇄하자 소련은 1947년 9월 유럽공산당노동자당정보국 일명 코민포름의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10월 5일 코민포름 창설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세 번째이다. 창립대회에서 소련대표 지다노프(Andrei Aleksandrovich Zhdanov)는 세계는 “한편의 제국주의적·반민주주의적 진영과 다른 한편의 반제국주의적·민주주의적 진영”으로 나뉘어졌으며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반제국주의·민주주의 진영의 “목표는 새로운 전쟁의 위협과 제국주의적 팽창에 대한 투쟁”이라고 연설하였다. 이제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으로 양분되어 이데올로기적으로 대립하는 냉전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가운데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으로 인하여 식민지에서 해방된 한반도의 남에는 미군이, 북에는 소련군이 진주하였으며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영·소의 외무장관 회의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유엔 신탁통치가 결정되었다. 이 결정에 대한 격렬한 찬반운동을 거쳐 48년 8월 15일 한반도의 남쪽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정권이, 9월 9일 한반도의 북쪽에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정권이 들어섰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세계적인 냉전

4) 歴史科学協議会(2000)『日本現代史』青木書店, pp.224-225

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되었다.

세계적인 국제정세가 동서의 냉전으로 전개되자 미국은 1949년 4월에 유럽 12개국으로 구성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성립시키고 소련과 대항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패전국 독일에서는 1949년 9월에 미국의 점령지역에서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이, 10월에 소련의 점령 지역에서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수립되었다. 한편 중국대륙에서 진행 중이던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의 내전은 1948년에 접어들면서 점차 중국공산당의 우위로 기울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1949년 10월 마오쩌둥(毛澤東)을 수반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로써 동아시아에서 소련, 중국,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와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냉전체제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에서 소련은 나토에 대항하기 위하여 1955년 5월 동유럽 8개국과 군사동맹기구인 바르샤바조약기구를 결성하였다. 이를 통해 완성된 전 세계적인 냉전구도는 1989년 11월에 동서독을 나누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듬해인 1990년 6월에 소련연방이 해체되기까지 지속되었다.

세계적인 냉전의 전개,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의 증가, 중국대륙에서 공산당 정권의 수립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자 미국의 대일점령정책은 급격히 변화한다. 위에서 살펴본 냉전의 심화라는 국제정치의 변화 속에서도 일본 국내에서는 비록 GHQ에 의해 좌절되기는 했으나 1947년 2월 1일 노동자들의 총파업 선언이 있었으며, 4월에 실시된 전후 첫 선거에서 사회당이 승리하는 등 민중운동은 성장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1948년 1월 6일에 미육군장관 케네스 로얄(Kenneth Claiborne Royal)이 「일본을 전체주의의 방벽으로(日本を全体主義の防壁へ)」 삼는다는 다음과 같은 연설을 통해 대일점령정책의 커다란 변화를 선언하였다.

미국은 일본에게 충분히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안정적이고 동시에 이후 동아시아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전체주의적 전쟁 위협에 대하여 방해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족적(Self-Sufficient)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sup>5)</sup>

선언 발표 이후 1948년 2월 케넌(George Frost Kennan) 정책기획실장이 일본을 방문하여 맥아더와 정책협의를 하였으며, 3월에는 드레퍼(William Henry Draper) 사절단이 일본의 경제 실정을 시찰하고 “일본자본주의의 급속한 부흥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종래의 징벌적인 배상 정책을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반독점 정책을 개선하여 계급적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을 진척시키는<sup>6)</sup> 권고를 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변화는 1948년 10월에 작성된 「미국의 대일정책에

5) 「戦後史しの激動」 <https://sengoshi.blog.ss-blog.jp/1948-01-06>(검색일 2020년 2월 18일)

6) 歴史科学協議会(2000), 앞의 책, p.230

관한 권고에 대한 국가안전보장회의 보고」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이후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체결할 강화조약을 염두에 두면서 “오카나와(沖繩)의 장기보유와 기지 확장, 강화 후 요코스카(橫須賀) 해군기지 사용, 경제부흥과 미국의 원조, 일본정부에 대한 책임 이양과 자주권 부여, 전범용의자에 대한 공직추방해제 등을 주장”<sup>7)</sup>하였다.

이러한 정세 변화 가운데 일본의 민중들은 전후 극도로 혼란한 정치 경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인금인상, 부인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민중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러한 운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맥아더는 1948년 7월 22일 아시다 히토시(芦田均) 수상에게 정부기관 노동자의 쟁의권을 부정하는 서간을 보냈으며 이것은 7월 31일 ‘정령201호’로 제정되어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파업과 단체교섭권을 박탈하였다.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이 진행되는 가운데 1948년 5월에 발생한 관료와 사회당 간부들의 뇌물수취 사건인 쇼와전공(昭和電工)사건이 발생하여 선거로 탄생한 사회당의 카타야마 테츠(片山哲)내각의 뒤를 이은 아시다 내각은 약 7개월 만에 총사퇴하였다. 그 뒤를 이어 48년 10월에 GHQ의 지지를 받은 보수주의자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의 소수여당이 탄생하였다. 요시다 내각은 그해 12월에 맥아더 서간으로 성립한 ‘정령201호’를 이어받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정식으로 법제화하고 23일 중의원을 해산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GHQ는 다음날인 24일에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등 A급 전범 용의자를 석방하였다. 이어서 1949년 1월 23일에 실시된 중의원 총선거에서 보수여당인 민자당(民自党)이 269석을 획득하여 과반수를 확보하였다. 이로써 미국의 점령정책 변화를 수행할 수 있는 보수정권의 지배체제가 확립되었다.

1949년 10월 대륙에서 중국공산당 정권이 성립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기운이 높아지자 맥아더는 제2회 참의원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둔 5월 3일 일본공산당을 비판하면서 비합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사를 발표하였다. 그러자 일본공산당은 이에 반발하여 황거 앞 광장에서 인민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데모에서 미군병사가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GHQ는 6월 6일 일본공산당 중앙위원 전부와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의 편집자 17명을 공직에서 추방하였다. 곧이어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그러자 맥아더는 26일 『아카하타』를 30일간 발행금지 하였으며 이후 7월 18일에는 무기한 정간을 명하였다. 이어서 미국은 6월 30일 지상부대 출동을 명령하였으며, 7월 7일에는 유엔군 사령부 설치, 8일 경찰예비대 창설, 해안보안청 증원, 7월 18일 공산당원과 그 지지자에 대한 배제를 지시하고 본격적인 레드퍼지(red purge)를 시작하였다.

7) 같은 책, p.230

## 2.2 로얄선언과 일본공산당의 노선변경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천황의 이름으로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전 국민에게 알렸다. 일본은 전쟁에서 패하였다. 이어서 8월 28일 일본 점령을 위한 미군 선발대가 아즈기(厚木)공항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9월 2일 도쿄만에 정박 중이던 미국의 전함 미즈리호에서 일본은 항복문서에 정식으로 서명하였다. 그 결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은 10월 2일 천황이 거주하는 황거 앞의 건물에 연합국최고사령관사령부(GHQ)를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미국 대일점령정책의 기본노선은 1945년 9월 22일 공식적으로 발표된 「항복 후 미국의 초기 대일방침(降伏後における米国の初期の対日方針)」과 11월 3일자로 맥아더에게 전달된 「일본점령 및 관리를 위한 연합국최고사령관에 대한 항복후의 초기 기본적 지령(日本占領及び管理のための連合国最高司令官に対する降伏後における初期の基本的指令)」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문서에 명기된 대일점령정책의 기본노선은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통해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일본군의 무장해제, 군국주의적 일본사회의 구조변혁, 서구적 민주화의 추진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는 10월 11일 GHQ가 발표한 전후 5대 개혁과제(여성 참정권부여, 노동조합 결성, 교육민주화, 전제정치 구조 폐지, 경제민주화)로 구체화되었다.

GHQ가 진행한 이러한 개혁과제의 수행 가운데 가장 먼저 실시된 것이 9월 11일에 나온 전범용의자의 체포지령이었다. 이 지령에 이어서 10월 4일 GHQ는 억압적인 군국주의 정치체제 유지를 위한 기둥이었던 치안유지법을 폐지하고 전쟁에 반대하여 감옥에 갇힌 정치범을 석방하였다. 이러한 석방조치의 결과 감옥에서 나온 토쿠다 큐이치(徳田球一) 등 일본공산당 간부는 1945년 10월 10일 「인민에게 고함(人民に訴ふ)」을 발표하여 연합군을 ‘해방군’으로 인식하고 미군 점령 하에서 실시되는 민주주의적 정치과정 속에서 천황제를 타도하고 인민공화정부를 수립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파시즘 및 군국주의로부터 세계해방을 위해 연합국 군대의 일본 진주에 의해 일본에서 민주주의 혁명의 단서가 열린 것에 대하여 우리들은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2. 미영 및 연합국의 평화정책에 대하여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이를 지지한다.
3. 우리들의 목표는 천황제를 타도하고 인민의 총의에 기초한 인민공화 정부 수립에 있다.<sup>8)</sup>

8) 徳田球一·志賀義雄 外「人民に訴ふ」(1945.10.10.)神山茂夫編著(1971)『日本共産党戦後重要資料集』第一卷, 三一書房, pp.58-59

여기서 말한 ‘인민의 총의’란 선거를 지칭한다. 즉 위의 선언은 ‘민주주의 혁명의 단서’로써 진행될 선거를 통하여 일본공산당이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인민공화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일본공산당은 1926년 12월 2일 야마가타현(山形県) 고시키(五色)온천에서 실시된 제3회 당 대회에 이어 19년만인 1945년 12월 1일 제4회 당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당 대회를 통해 일본공산당은 당 조직을 정비하고 정치활동 재개를 준비하였다. 이에 더하여 1946년 1월 12일 그동안 중국에 망명하고 있던 노사카 산조(野坂参三)가 일본으로 귀환하자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일본공산당 제5회 당 대회를 개최하고 「인민에게 고함」에서 발표한 전술을 보다 구체화하여 미군의 점령 하에서 평화적인 혁명이 가능하다는 ‘점령하의 평화혁명론’(노사카이론)을 채택하였다. 이 당 대회에서 토쿠다 큐이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전부터 연합군은 우리들에게, 일본의 인민대중에게 민주주의 혁명의 해방군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평화적 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해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들의 목적입니다.……이 투쟁력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평화적·민주주의적 방법으로 혁명에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sup>9)</sup>

여기서 말하는 ‘평화적 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해 완수할 수 있는 혁명이란 “선거를 통하여 공산당이 중의원 제1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정권을 장악하여 수상을 비롯한 내각을 구상한다. 다음 혁명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정치 구상을 말한다.”<sup>10)</sup> 이러한 전략전술은 50년 1월의 코민포름 비판 이후 미군을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이라고 인식하면서 노사카이론을 일부 수정하여 민주민족전선을 제시한 1948년 제9회 중앙위원회 총회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일본공산당이 노사카이론을 정식으로 부정한 것은 일본공산당의 ‘50년 문제’를 거치면서 무장투쟁론을 채택한 1951년 2월 일본공산당 제4회 전국협의회이다.

패전 이후 정치상황은 점차 안정되어 갔으나 사회상황은 여전히 혼란한 상태였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적으로 냉전이 심화되자 미국은 1948년 1월 6일에 로얄선언을 발표하였다. 앞서 살펴본 로얄선언은 일본을 비군사화 하려는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이후 극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주의 세력의 위협에 대한 방벽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일본을 육성하겠다는

9) 徳田球一(1946.4)「一般報告—現下の情勢と党の活動について」『日本共産党戦後重要資料集』第一巻, p.116. 이 자료는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일본공산당 제5회 당 대회에서 발표된 것이나 1946년 4월 『前衛』四号에 게재되었다. 여기에 표기한 1946.4는 게재된 시점을 나타낸다.

10) 최종길(2013)「이시모다 쇼의 민족담론」『일본학』제37집, p.167 각주8

미국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sup>11)</sup>

미국이 로얄선언을 통해 냉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형태로 대일점령정책을 변경하고 일본 공산당과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자 일본공산당은 1948년 2월 6일에 제9회 중앙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미국의 우회귀 정책에 저항하지 않는 사회당의 카타야마(片山) 내각 타도를 선언한다.

우리당은 인민대중과 함께 카타야마 내각의 즉시 사직을 요구함과 동시에 그 타도에 전력을 다할 때가 왔다고 믿는다.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자, 시민, 진실한 산업가, 즉 대다수 국민의 이익에 입각하여 이들을 대표하는 모든 민주세력이 결집한 민주전선만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민족독립을 보증할 수 있다.<sup>12)</sup>

2월 6일 제9회 중앙위원회 총회의 시점에서 일본공산당은 미국에 대한 비판을 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가 사회당 내의 좌우대립으로 인해 2월 10일 카타야마 내각이 무너지고 3월 10일 민주당의 아시다 히토시를 수반으로 하는 사회당, 민주당, 국민협동당(国民共同党)의 연립내각이 발족하자 보수연립정권에 대항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주민족전선 결성을 제안한다.

민주당 수반의 연립정권이 우리들 앞에 나타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형태이든 반동세력과 그 앞잡이 정권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끝없는 공핍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독립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지난 중앙위원회에서 우리 당이 민주민족전선 결성을 방침으로 내세운 것도 실은 이 절망에 입각한 것입니다.……민주민족전선을 결성하는 것이야말로 긴급한 임무라고 믿는 바입니다.……국가의 자유와 독립, 민주 일본 건설의 열망에 불타면서 민주민족전선 결성을 호소하는 바입니다.……우리 당은 온갖 민주단체와 당파, 민주적 국민에게 민주민족전선 결성에 관하여 협의 논의하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sup>13)</sup>

이 제안에서 일본공산당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미국 주도의 개혁이 시작된 지 ‘3년째에 들어서고 그 사이 5번의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민주혁명은 아직 달성되지

11) 같은 논문, p.169

12) 日本共産党第九回中央委員会総会「片山内閣打倒闘争宣言」(1948.2.6.)社会運動資料刊行会(1951), 『日本共産党資料大成』社会運動資料刊行会, p.210

13) 日本共産党第中央委員会「民族民主戦線結成提案の趣意書」(1948.3.10.)『日本共産党戦後重要資料集』第一卷, pp.322-323

않았다<sup>14)</sup>고 판단하면서 그 책임을 보수정권의 획책으로 돌리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민주주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수주의에 대항하는 모든 민주세력이 결집하여 민주민족전선을 결성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일본공산당은 미국의 점령정책 변경에 대한 비판을 행하지 않고 있으며, 냉전으로 변해가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서 ‘민족의 독립’과 ‘국가의 자유와 독립’을 강조하여 미군의 점령하에 있는 일본의 상황을 언급한 점은 노사카이론의 근거로 작용한 ‘해방군’적 시각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다가 48년 10월 7일 쇼와전공 사건으로 아시다 연립정권이 무너지고 10월 15일 보수당의 요시다 시게루 내각이 들어서자 카미야마 시게오는 국제적인 정치위기와 국내의 반동화 경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제2차 요시다 내각의 성립은 이 경향(정치적 위기를 동반한 반동화·인용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을 시작으로 각국의 여론이 지적하고 있듯이 일본은 아시아에서 ‘반공전선’의 거점으로 특히 중·일·한 동맹의 결절점이 되어 새로운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sup>15)</sup>

미국이 48년 1월 16일 로얄선언으로 일본에 대한 점령정책을 변경하고 국제적인 냉전에 대비하는 정책을 명확히 하였음에도 일본공산당은 48년 11월이 되어서야 즉 로얄선언 이후 10개월이 지나서 중국 등 외국의 언론을 언급하며 일본이 ‘아시아에서 반공전선’의 거점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GHQ가 일본의 모든 행정력을 장악하고 일본공산당을 탄압하기 시작한 만큼 명확하게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강조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해방군’은 아니라는 인식이 겨우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 3. ‘50년 문제’의 발생과 노선변화

#### 3.1 코민포름의 일본공산당 비판

세계적으로 냉전이 심화되면서 동북아시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으로 변하였다. 특히 1948년 9월 한반도의 북쪽에 소련의 지지를 받는 사회주의 국가 조선민주주

14) 같은 자료, p.321

15) 神山茂夫「危機における日本国家の本質」(1948.11.29.)『日本共産党戦後重要資料集』第一巻, pp.329-330

의인민공화국이 성립하였으며, 1949년 1월에는 중국인민해방군이 베이징(北京)시를 정식으로 점령하면서 중국대륙에서 공산당의 승리가 눈앞에 있었다. 마침내 그해 10월 중국대륙에는 사회주의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였다. 이제 한반도는 냉전을 넘어 전쟁을 준비하는 열전(熱戰)의 장으로 변하고 있었다. 2001년 당시 산케이신문(産經新聞) 모스크바 지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이토 츠토무(齋藤勉)는 소련공산당 고문서와 러시아대통령 고문서 등을 이용하여 북한이 국기수립 직후 바로 전쟁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김일성은.....49년 3월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모스크바 역에 내렸다.....김일성은 스탈린과의 면담에서 이미 한국에 대한 군사침략을 통해 조선통일의 의사를 명언하였다.....김일성은 “남쪽의 반동세력은 자신들에게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실력이 쌓일 때까지 국가의 평화통일에는 동의하지 않고, 분단을 영구화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선수를 칠 최선의 기회입니다. 우리군은 보다 강하며 더욱이 친미체제를 경멸하는 남쪽에서는 우리를 지원하여 강력한 게릴라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스탈린에게 남침(한국침략)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sup>16)</sup>

이러한 김일성의 요구에 대하여 스탈린은 북한군은 한국군에 비하여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한반도에 미군이 진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침은 시기상조라고 하여 반대하였다. 그러나 1년 후인 1950년 4월 회담에서 스탈린은 남침에 찬성하여 ‘삼단공격론’이라는 구체적인 남침론을 지시하였다. 이후 김일성은 스탈린의 지시로 5월 15일 베이징에서 마오저통과 회담하고 6월 25일 새벽에 남침할 것임을 알렸다.<sup>17)</sup>

이러한 내용이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미국 측 자료가 있다. 『조선전쟁(朝鮮戰爭)』을 저술한 하기와라 료(萩原遼)는 미국의 버지니아(Virginia)주 노포크(Norfolk)시의 맥아더 기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문서를 통해 미국이 북한의 정보를 탐지하기 위하여 1949년 6월에 ‘한국연락사무소(KLO, Korean Liaison Office)’ 일명 ‘탐방반(探訪班)’이라고 불린 조직을 만들어 북한에 다수의 스파이를 침투시킨 사실을 밝혔다. 이 자료에 의하면 KLO의 임무와 역할은 ‘북한의 정부기관, 군, 산업기관에 침투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G2, GHQ, FEC 및 한국에서 한·미 쌍방의 모든 정보조직 사이의 상호 연락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KLO는 1949년 6월 1일부터 50년 6월 24일까지 북한군의 상황, 이동, 장비, 주민소개(疏開), 다리와 도로의 건설상황 등 군사에 관한 1195건의 정보를 보냈다.<sup>18)</sup> 위의 두 자료에 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김일성이 49년 3월에 소련에 가서 남침의사를 밝히자 이를 탐지한 미국이 6월에

16) 齋藤勉(2001)『スターリン秘録』産經新聞社, pp.161-162

17) 같은 책, pp.162-164

18) 萩原遼(1997)『朝鮮戦争』文芸春秋, pp.286-288

KLO를 설치하여 북한의 군사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늦어도 1949년 6월 경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의 중심국인 소련, 중국, 미국은 머지않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민포름은 1950년 1월 6일 자신들의 기관지 『항구적 평화와 인민민주주의를 위하여』를 통해 미국은 점령자이며 이들이 일본을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논문인 「일본의 정세에 대하여(日本の情勢について)」를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1월 13일자 『아카하타(アカハタ)』에 번역되어 게재되었다. 업저버란 이름으로 발표되었지만 스탈린이 작성한 이 논문은 곧 일어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앞두고 GHQ의 점령 하에서 평화적인 혁명이 가능하다고 한 노사카이론을 철저하게 비판한 것이다. 중요한 논문인 만큼 좀 길지만 개략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들(미국-인용자)은 일본을 소련의 동맹 및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운동에 대한 군사모험의 주요한 기지로 보고 일본을 중요시하게 되었다.……이렇게 하여 일본의 정치 경제는 모두 미국의 침략정책과 그 침략정책에 기초한 행동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따라서 제국주의적 일본의 부활과 민주주의 운동의 억압은 이전부터 일본의 반동세력과 미제국주의자로 구성된 집단의 공동 목적이며 기초가 되었다.<sup>19)</sup>

스탈린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탄생한 북한과 중국 정권을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운동’의 결과로 평가하면서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미국은 ‘일본의 반동세력’과 연합하여 일본을 군사기지로 삼고 있다고 판단한다. 스탈린은 냉전이 심각해진 동북아시아의 정치상황 속에서 GHQ의 지배하에 있는 일본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을 위와 같이 정리하고 이어지는 문장에서 노사카이론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일본에서 미 점령군이 마치 진보적인 역할을 하고 일본을 사회주의적 발전으로 이끌어서 ‘평화혁명’에 기여하고 있는 듯 한 노사카의 견해는 일본인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외국 제국주의자가 일본을 외국 제국주의의 식민지적 부가물로, 동양에서 새로운 전쟁의 근원지로 바꾸려는 것에 보탬을 주는 것이다.……노사카 ‘이론’은 일본의 제국주의 점령자 미화이론이며, 미제국주의자 칭찬이론이며 따라서 이것은 일본 인민대중을 기만하는 이론이다.……반민주적인 반사회주의적인 이론이다.……반애국적인 이론이며 반일본적인 이론이다.<sup>20)</sup>

19) 「日本の情勢について」(1950.1.6.)『日本共産党戦後重要資料集』第一巻, p.352

20) 같은 자료, p.354

즉 스탈린은 “노사카는 미 점령군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일본이 직접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는 부르주아적인 속물적 견해를 주장하고”<sup>21)</sup> 있다고 비판하였다.

코민포름 기관지에 게재된 논문의 보다 정확한 내용이 알려지자 1월 11일 일본공산당 정치국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시가 요시오(志賀義雄), 미야모토 겐지(宮本堅治)의 비주류파는 코민테른의 비판을 받아들일 것을, 토쿠다 큐이치, 노사카 산조, 이토 리츠(伊藤律), 시다 시게오(志田重男), 곤노 요지로(紺野与次郎)의 주류파는 수용반대를 주장하였다. 이 회의에서 전후 일본공산당 정치국은 처음으로 분열하여 주류파(소감파)와 비주류파(국제파)로 분열되었다. 다수결에서 승리한 토쿠다의 주류파는 12일 「일본의 정세에 대하여」에 관한 소감(「日本の情勢について」に関する所感)을 발표하였다. 이들 주류파는 노사카 이론이 불충분하고 여러 가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을 통해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유감의 뜻을 표하였다.

이 논문은 일본에서 가장 성실한 인민을 위한 애국자인 공산당이 어떻게 행동해야하는가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극히 유감이다.<sup>22)</sup>

일본공산당은 이러한 의견대립과 조직분열 속에서 1월 18일 제18회 확대 중앙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총회에서는 「소감」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었으며 이로 인한 조직분열은 더욱 확대되었다. 주류파는 “평화혁명 방식만을 버린다면 종전과 같은 민족전선전술과 인민정권 요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비판에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비주류파는 “지금까지의 전략전술을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보다 강화하여 국내 정부가 아니라 미제국주의에 공격력을 집중함으로써만 비로소 국제적인 비판에 대응할 수 있다”<sup>23)</sup>고 보았다. 이 시점에서 일본공산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지만, 비주류파는 코민테른의 의도를 파악하여 미국을 제국주의 점령군으로 인식하고 이와 대립각을 세우는 전략전술로의 변경을 요구하였다.

일본공산당 주류파가 코민테른의 비판을 수용하지 않자 이번에는 중국공산당이 1월 17일 자신들의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에 「일본인민 해방의 길(日本人民解放の道)」을 게재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주류파를 비판한다.

21) 같은 자료, p.353

22) 日本共産党中央委員会政治局「日本の情勢について」に関する所感(1950.1.13.)『日本共産党戦後重要資料集』第一巻, p.355. 이 「소감」은 12일 발표하였으나 『아카하타』에는 13일 게재되었다. 따라서 괄호안의 숫자1950.1.13.은 게재날짜를 의미한다.

23) 고야마 히로타케 저·최종길 옮김(2012)『전후 일본의 공산당사』어문학사, pp.98-99

외국통신사가 일본공산당 정치국이 1월 12일에 성명을 발표하여 노사카가 범한 오류는 ‘이미 극복되었으며’ 코민포름 기관지의 비판은 일본공산당의 입장에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 비판적인 논문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표명하였다고 전한다. 이것이 정말이라면, 일본공산당 정치국의 견해 및 태도는 옳바르지 않으며 더욱이 적당하지 않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우리들은 이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우리들은 곧 일본공산당중앙위원회총회가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러한 태도를 고쳐서 노사카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적당한 수단을 취하기를 희망한다.<sup>24)</sup>

제18회 확대 중앙위원회 총회 도중에 이와 같은 『인민일보』의 사설 내용이 알려지면서 주류파는 자신들이 발표한 「소감」을 부정하고 코민포름의 비판을 만장일치로 수용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이론을 집중적으로 비판받은 노사카는 2월 6일 「나의 일기 비판(私の日記批判)」을 발표하여 점령하 평화혁명론의 오류를 인정하였다. 외부의 비판을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일본공산당의 이론적 조직적 움직임은 어디에도 없었다. 한편 자신들의 주장이 타당하며 국제적으로도 지지받고 있다고 판단한 비주류파는 주류파인 당 중앙에 대한 비판을 더욱 강화해간다. 여기서 당내 투쟁이 격화되면서 일본공산당은 극도의 분열 상태에 빠진다.

### 3.2 당내 투쟁의 격화

코민포름 비판을 계기로 분출한 당의 분열에는 전후 일본공산당의 재출발과 더불어 지속되어 온 주류파의 독점에 대한 비주류파의 반발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소련과 중국 공산당의 의견이 자신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한 비주류파는 당 중앙에 대한 비판을 강화한다. 특히 당 중앙의 권위주의적인 운영에 불만을 가진 나카니시 츠토무(中西功)는 요미우리(読売)신문에 당 중앙을 비판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러자 당의 통제위원회는 1월 20일자로 그를 제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하여 나카니시를 중심으로 한 그룹은 당 본부에 집단적인 항의행동을 시도하였다. 결국 나카니시는 관료주의적인 당 비판은 옳았지만, 이를 표현하는 자신의 행동은 경솔했다고 하면서 1월 26일 「참의원 의원 사임에 즈음하여(参議院議員辞職に当りて)」를 발표하고 의원직을 사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란을 수습할 힘이 없었던 당 주류파는 통제위원회를 동원하여 반대파를 억압하는데 집중하였다. 그러자 이전에 주류파에 의해 자신의 의견서를 무시당했던 시가 요시오가 2월에 들어서서 당 정치국의 결정을 거부하고 ‘토쿠다 서기장을 추방하자’는

24) 「日本人民解放の道」(1950.1.17.)『日本共産党戦後重要資料集』第一巻, p.373

내용의 의견서를 배포하는 규율위반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당내의 노동자 그룹과 국회의원 비서 등이 당 중앙과 거리를 두면서 비주류의 독자적인 모임을 준비하여 당 내에 명백한 분파행동이 발생하였다. 3월에 접어들면서 학생운동의 중심을 담당하던 전일본학생자치회총연합(全学連)에서도 당 중앙의 관료주의적 태도를 비판하였다. 이렇게 되자 당의 통제 위원회는 3월 15일 「당 강화와 당 규율의 엄숙화를 위하여(党強化と党規律の厳粛化のため)」를 발표하여 반대파의 활동을 억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요시오는 「민족주의자의 새로운 기만에 대하여(民族主義者の新しい欺瞞について)」와 「민족주의자의 새로운 책모에 대하여(民族主義者の新しい策謀について)」란 의견서를 배포하는 분파활동을 강화하였다.<sup>25)</sup> 주류파나 비주류파 모두 자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고 하는 당내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행동을 보였다.

심화되어 가는 당의 분열 속에서 1950년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제19회 중앙위원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총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토쿠다 서기장이 제출한 강령초안 「도래할 혁명에서 일본공산당의 기본 임무에 대하여(当来する革命における日本共産党の基本的任務について)」(통칭 50년 테제 초안)에 대한 논쟁이었다. 이 초안은 주류파의 의견을 주로 담고 있으며 강령기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출되었다. 이러한 면에서 이 초안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총회가 진행되고 있던 29일에 다음달 3일의 헌법기념일에 발표될 맥아더의 성명서 내용 즉 앞서 살펴본 일본공산당의 비합법화 방침이 당 내부로 전달되었다. 이로 인해 50년 테제초안에 대한 심의는 미완인 상태로 가을에 예정된 당 대회 때까지 토론에 붙이기로 하였다. 이후 진행된 토론은 코민포름의 비판을 받아들이면서도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의미와 구체적인 일본의 과제에 대하여 의견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종래의 2단계 혁명(민주주의 혁명에서 사회주의 혁명으로 발전)에 민족해방의 과제를 결합한 주류파의 의견, 둘째 사회주의혁명의 기본임무에 민족해방의 과제를 결합한 국제파의 의견, 셋째 민주주의 혁명이나 사회주의 혁명과는 기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민족해방혁명을 강조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전략론의 대립은 조직분열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으며 더욱 심각한 분파투쟁의 토대가 되었다.<sup>26)</sup>

제19회 중앙위원회 총회를 마치고 일본공산당 중앙은 이후 예상되는 점령군의 탄압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치국과 서기국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지하 비공개 조직을 준비하였다. 주류파

25) 고야마 히로타케 저·최종길 옮김(2012), 앞의 책, pp.102-106

26) 같은 책, p.113. 분파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책의 제2장을 참고할 것. 세 번째 그룹은 국제파 가운데서도 극좌파에 속하는 집단으로 국제주의자단, 통일협의회, 나카니시(中西功)파 등으로 불림.

중심으로 구성된 비합법 조직은 당 규약과 조직원칙에 위배되는 분과행동이었다. 코민포름의 일본공산당 비판 이후에 비주류파가 분과활동의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주류파가 당내 반대파를 배제한 비합법 분과활동의 핵심을 이루었다. 6월 7일 주류파는 통제위원회의 명의로 자파 중심으로 구성된 8명의 중앙지도부원을 임명하고 임시중앙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다음은 일본공산당통제위원회 명의로 1950년 6월 8일자 『아카하타』에 게재된 「임시중앙지도부 지명(臨時中央指導部の指名)」의 변이다.

1950년 6월 6일 파쇼적 탄압에 의한 중앙위원 전원의 추방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기능은 사실상 정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긴급사태에 대하여 더구나 불타고 있는 대중의 혁명적 고양에 대처하고 당의 중대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6회 대회에서 선출된 통제위원회는 그 책임에 있어 다가올 당 대회까지 잠정적인 중앙지도부를 만들 필요를 인정하여 아래의 여러 동지를 임명한다.<sup>27)</sup>

이로 인해 공식적인 당 중앙위원회는 기능을 잃어버리고 해체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규약에 없는 위법행위였다. 뿐만 아니라 GHQ가 6월 6일에 일본공산당 간부에 대한 공식추방을 발표할 때 20일 간의 사무인계 기간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당은 공식적인 회의체계를 활용하여 대책을 세울 수 있었지만 통제위원회도 열지 않고 자파 중심의 임시중앙위원을 임명한 것은 조직의 민주적 운용과는 거리가 먼 위법행위이자 명백한 분과활동이었다.

이렇게 하여 구성된 임시중앙지도부는 6월 18일에 공식추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새로운 당 지도체제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합법적인 지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전국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서 임시중앙지도부 의장의 자격으로 시이노 에츠로(椎野悦朗)는 새롭게 선출된 “이 지도부야말로 급변하는 풍파 속에서 전인민을 전진의 길로 이끌 혁명당의 지도자이다. 전당은 이 지도부 하에서 사상과 의사를 통일하여 철의 규율에 따라 단결해야만 한다”<sup>28)</sup>고 강조하여 자신들의 공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이에 따를 것을 역설하였다. 이어서 시이노는 현재 일본은 “반동세력에 의해 일본의 식민지화와 일본을 최전선 기지로 삼아 새로운 전쟁을 도발”<sup>29)</sup>하려는 미국의 정책구상 아래에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그는 일본공산당은 “반파쇼 민주민족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sup>30)</sup>하며 이를 통해 일부의 반동세력을 제외한

27) 日本共産党統制委員会「臨時中央指導部の指名」(1950.6.7.) 日本共産党中央委員会五〇年問題文獻資料編集委員會編(1981, 제2판)『日本共産党五〇年問題資料集』2, 新日本出版社, p.2

28) 椎野悦朗, 「すべてを反ファシヨ民主民族戦線へ—党全国代表者会議における一般報告」(1950.6.18)『日本共産党五〇年問題資料集』2, p.3

29) 같은 자료, p.3

30) 같은 자료, p.3

전 일본의 민주세력이 연합하여 민족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시이노는 이러한 구체적인 투쟁을 위한 과제 가운데 마지막 8번째로 “분과주의자들과의 투쟁”<sup>31)</sup>을 제시하였다. 주류파는 GHQ의 탄압이라는 위기 상황을 이용하여 규약에도 없는 임시 중앙지도부를 결성하고 비주류파를 분과주의로 정의하여 이들과의 공개적인 투쟁을 선언하였다. 이제 당내 분열과 투쟁은 양 파가 모든 조직을 동원하여 결사항전의 형태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일본공산당의 내부 투쟁이 심화 확대되는 가운데 6월 25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강대국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에 그치고 있던 냉전이 마침내 군사력이란 물리력을 동원한 전쟁으로 변화하였다. 소련과 중국은 이 전쟁을 대비하여 일본공산당 주류파에게 점령하에서도 평화혁명이 가능하다는 노사카이론을 폐기하고 미군을 점령군으로 인식하고 이들과 투쟁하라고 지도하였으나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일본공산당 내부는 극심한 분과투쟁의 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중국공산당은 7월 7일 『인민일보』를 통해 「일본 인민투쟁의 현황(日本人民闘争の現状)」을 발표한다. 중국공산당은 현재 일본이 처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미국은 일본의 민주세력을 압박하고 일본의 전범을 석방하여 일본 침략의 부흥을 도와서 자신들이 시작한 새로운 전쟁의 도구로 삼으려고 한다.<sup>32)</sup>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일본에서 일본공산당이 취할 수 있는 투쟁방침을 중국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일본공산당이 이 민족통일전선을 어디까지나 강고하게 하여 확대하고, 이 민족통일전선의 결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여기에 정확한 행동지침을 획득하도록 진력한다면 이것에 의해 일본민족 해방과 인민해방 사업은 당연히 빛나는 앞날을 기대할 수 있다.

일본민족전선의 확대와 발전은 일본공산당이 어떠한 조건 하에 있더라도 계속 존재하며 그리고 일치단결하여 정확한 투쟁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33)</sup>

이러한 투쟁방침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소련과 중국 공산당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인민일보』는 사설을 마감한다.

31) 같은 자료, p.8

32) 「日本人民闘争の現状(1950.7.7.)」『日本共産党五〇年問題資料集』2, p.21

33) 같은 자료, p.22

비합법에 내몰린 각국의 공산당이 정확한 정치코스와 조직코스를 엄격하게 견지하고 내부가 일치단결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곤란한 조건 하에 있더라도 당연히 인민의 혁명적 투쟁의 전진을 계속해서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sup>34)</sup>

이 사실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력간섭이 개시된 현실을 앞에 두고 미제국주의자에 대한 일본 인민의 민족통일전선 결성의 필요와 의의를 논하고 공산당의 단결과 추진에 의한 통일전선의 확대와 발전을”<sup>35)</sup> 권고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도 일본공산당의 분열을 저지하지는 못하였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시작되자 GHQ에 의한 레드퍼지는 강화되어 전국적으로 산업분야를 가리지 않고 수 만 명이 직장에서 해고되고 추방되었다. 이 때문에 생활을 지키기 위한 당원들의 탈당이 이어졌고 당은 점점 더 무력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시중앙지도부가 비주류파의 지방기관과 당원들에 대한 제명처분을 강행하자 비주류파는 1950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에 걸쳐 오사카에서 비주류파의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자신들만의 전국통일위원회를 결성하고 일본공산당 전국통일위원회 명의로 「당의 혁명적 통일을 위하여 성명한다(党の革命的統一のため(に)声明する)」를 발표하여 주류파를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하였다. 주류파에 반대하는 각 기관과 그룹이 이 전국통일위원회에 결집하면서 “당은 완전히 둘로 나뉘어 실질적으로 두 개의 당 조직이 존재하게 되었다.”<sup>36)</sup>

한반도에서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하여 레드퍼지가 강화된 상황에서도 당은 단결하기보다 완전히 둘로 쪼개지는 상황일까지 이르자 중국공산당이 9월 3일자 『인민일보』에 「지금이야말로 일본인민은 단결하여 적에 대항해야할 시기다(今こそ日本人民は団結し、敵にあたる時である)」를 발표하였다. 이 사실은 한반도에서 현재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과 이로 인하여 미국이 일본을 식민지화, 군사기지화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일본인민의 적은 미국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본공산당과 그 구성원들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일본공산당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전에 약간의 원칙적인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이후 일본공산당은 모든 오류를 수정하였다.……따라서 일본공산당의 충실한 당원 모두는……일본공산당 중앙의 주위에 굳건하게 단결하고 중앙이 결정한 코스에 따라서 함께 적을 향해서 분투해야만 한다. 일본공산당 내부의 일치단결, 당원 전체가 대국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일본공산당 내부의 통일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떠한 것보다도 실로 중요한

34) 같은 자료, p.23

35) 교야마 히로타케 저·최종길 옮김(2012), 앞의 책, p.132

36) 같은 책, p.137

최고의 임무이다.

최근 일본공산당의 약간의 당원은 일본공산당중앙이 결정한 코스의 정확함에 의문을 가지고 혹은 이를 부인하고 또 약간 부적당한 극좌모험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슬로건을 제출하고.....그들의 이러한 사상은 올바르지 않다. 그들은 당연히 냉정하게 당면한 정세를 고려하여 이러한 부당한 요구와 슬로건을 버리고 일본공산당 지도기관 및 전당의 대다수 당원과 진심으로 단결해야만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공산당의 지도기관 즉 현재의 임시지도부는.....당연히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반대의견에 귀를 기울여야하며 그러한 가운데 받아들일 만한 것은 성의를 가지고 이를 받아들이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설득해야만 하고.....즉, 일본공산당의 지도기관은 반드시 성의를 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당에 대하여 성실한 모든 당원과 단결해야만 하며 초조해하여 쉽게 조직상의 방법으로 그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sup>37)</sup>

이 사설은 1950년 1월 코민테른의 일본공산당 비판 이후 일본공산당 중앙은 자신들의 오류를 충분히 수정하여 올바른 방침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당 중앙과 다른 의견을 가진 비주류파는 자신들의 잘못된 주장을 버리고 주류파를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주류파에 대해서는 비록 비주류파가 잘못된 주장을 하더라도 당내 기구를 활용하여 이들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이들을 설득하여 포용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즉 중국공산당은 지금까지 일본공산당 중앙을 비판한 것과는 태도를 달리하여 비주류파를 극좌모험주의라고 비판하고 주류파 중심으로 단결하라는 새로운 지침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태도변화에 결국 비주류파의 전국통일위원회는 9월 15일 「북경인민일보 9·3사설의 충고를 접하고(「北京人民日報」九·三社説の忠告をうけて)」를 발표하여 『인민일보』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여전히 분열과 분파활동의 요소를 내포하면서도 코민포름 비판으로 발생한 일본공산당의 조직 분열과 내부투쟁은 여기서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 3.3 무장투쟁 노선의 제시

중국공산당이 일본공산당의 주류파를 옹호하자 당내의 정통성과 헤게모니를 다시금 장악한 주류파는 10월 7일과 10월 12일에 자신들의 비합법 기관지 『평화와 독립(平和と独立)』과

37) 「今こそ日本人民は団結し、敵にあたる時である」(1950.9.3.)『日本共産党五〇年問題資料集』2, pp.127-128

『내외평론(内外評論)』 특별호(제4호)에 「공산주의자와 애국자의 새로운 임무-힘에는 힘으로 싸우자(共産主義者と愛國者の新しい任務-力には力を以てたたかえ-)」란 논문을 발표하여 무력혁명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논문은 아시아태평양 노동조합회의의 류사오치(劉少奇) 테제와 7월 17일자 『인민일보』에 게재된 논문 「무장한 인민 대 무장한 반혁명은 중국만의 특질은 아니다」를 기계적으로 일본에 적용한 것으로 일본은 중국의 농촌유격대 조직과 소련의 도시노동자 무장봉기 경험을 흡수하여 군사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주류파는 1951년 1월 24일자 『내외평론』 제6호에 「왜 무력혁명이 문제시되지 않았는가(なぜ武力革命が問題にならなかったか)」를 발표하여 노동자와 농민의 투쟁을 무장투쟁으로 준비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sup>38)</sup> 여기에 대하여 비주류파는 1951년 1월 『해방전선(解放戦線)』 1호에 「새로운 정세와 일본공산당의 임무(新しい情勢と日本共産党の任務)」를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주류파를 비판하였다.

현재 일본혁명운동의 역학 관계, 인민의 단결과 성장의 정도, 공산당의 힘에 대한 현상을 무시하고 일본의 정세가 마치 혁명적 위기의 성장기에 있으며 결정적 투쟁의 전야인 것처럼 말하여 권력획득을 위해 xx투쟁 혹은 xx혼련적 투쟁을 당면한 행동 슬로건인 듯 논하는 것은 결정적인 오류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현 정세에 대하여 소수정예분자가 극좌모험주의에 빠져버린 결과 평화와 독립을 위한 중요한 여러 투쟁 특히 민주민족전선의 결집에 의한 인민의 위대한 정치적 단결이라는 당면한 주요임무를 팽개치고 당과 혁명운동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xx는 무장인용자).<sup>39)</sup>

이렇게 하여 51년 초에 양 파의 전략 전술론은 완전히 정반대가 되었다. 즉 이전에 ‘점령하 평화혁명’을 주장하던 주류파가 미국과의 투쟁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한 비주류파를 극좌모험주의라고 비판하였다면, 이제는 비주류파가 과격하고 극좌적인 무장투쟁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주류파를 극좌모험주의로 비판하는 상황으로 변하였다. 주류파의 극좌모험주의로의 방향전환은 1951년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 제4회 전국협의회에서 확정되었다. 이 4전협은 주류파 지하 지도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영되었다. 먼저 주류파는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과 관련하여 국제정세를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38) 고야마 히로타케 저·최종길 옮김(2012), 앞의 책, pp.151-152

39) 「新しい情勢と日本共産党の任務」(1950.12.)『日本共産党五〇年問題資料集』2, pp.204-205. 본문에서 언급한 주류파의 무장투쟁 관련 문건은 『日本共産党五〇年問題資料集』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것은 일본공산당 내에서 ‘50년 문제’를 총괄하고 1957년에 이와 관련된 자료집을 발간할 때 주류파와 비주류파 사이에 정치적인 타협이 있었으며 그 결과 각 파의 심각한 오류와 관련된 자료는 의도적으로 제외된 것을 의미한다.

1950년은 세계정세 상에서 두 진영의 세력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온 해였다.……그것은 조선동란을 둘러싼 2대 진영의 정책과 힘이 격렬한 투쟁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조선은 지금 ‘평화’와 ‘전쟁’이 대립하는 두 진영의 정책이 그 승패를 결정하는 전 세계 계급투쟁의 초점이다. 동시에 이것은 국제독점자본의 지배에 대한 모든 민족해방투쟁의 초점이다.<sup>40)</sup>

세계적인 냉전체제가 동북아시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마침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된 한반도의 상황은 일본에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냉전의 전개는 미국의 대일점령정책 변경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보수정치집단이 다시 일본의 지배세력으로 등장하였으며, 일본전역은 전쟁기지로 변하였다. 일본공산당 주류파는 4전협에서 이러한 일본의 변화를 ‘민족의 위기’로 인식하고 “민족의 독립과 평화를” 쟁취하기 위하여 “노동자계급과 농민의 기본적인 투쟁부대를 철저히 강화하여” “민족민주전선의 통일”<sup>41)</sup>을 이루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적인 투쟁부대’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 농민을 주체로 한 인민세력을 투쟁하는 현실의 조직으로 결집하는 기초는……즉,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 지도력을 현실의 조직적 힘으로써 결집시키는 것은 지역 인민투쟁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다양한 형태의 인민 자위단의 조직을 확대발전시키는 것이다.<sup>42)</sup>

4전협 결정문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위기에서 일본 ‘민족의 독립과 평화’를 쟁취하는 것은 ‘지역 인민투쟁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계급과 농민의 기본적인 투쟁부대를 철저히 강화’시켜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공산당 50년 자료집』에 게재되지 않은 주류파의 무장투쟁과 군사방침에 관한 자료 예를 들면 「조직문제에 대하여(組織問題にちて)」, 『내외평론』제14호, 제16호에 게재된 「일본공산당의 당면한 기본적인 행동방침(日本共産党の当面の基本的行動方針)」 등을 분석한 고야마 히로타케는 4전협의 결정은 미군을 몰아내고 보수권력을 무너트리기 위해서는 인민들의 무장투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의 다양한 투쟁을 발전시켜 중핵적인 자위단으로 결집시키고 그 내부에 유격대를 만드는 것이 당면한 임무이며, 이들 유격대는 각 지역에 근거지를 확보하여 활동하며 궁극적으로는 인민해방군으로 이어져야하는 주장이라고 이해한다.<sup>43)</sup>

40) 日本共産党第四回全国協議會, 「日本共産党第四回全国協議會決定」『日本共産党五〇年問題資料集』3, pp.1-2

41) 같은 자료, p.6

42) 같은 자료, p.6

43) 고야마 히로타케 저·최종길 옮김(2012), 앞의 책, pp.155-156

4전협에서 이러한 무장투쟁론을 제출한 주류파는 바로 「분파주의자에 관한 결의(分派主義者にかんする決議)」를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파에 대한 처분방침을 분명히 하였다.

이 시기에 이미 당과 인민의 단결을 내부에서 파괴하고 객관적으로 민족의 적을 이롭게 하는 모든 분파주의자를 우리 진영 내에 머물게 할 수는 없다……따라서 대회에 준하는 중대한 이 전국협의회는 더욱이 당내에 남아 있는 모든 분파주의자 및 그들과 내통하는 중간파 분자에 대하여 마지막 권고를 행하고 철저한 자기비판과 당 규율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며 여기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단호한 처단을 우리 임시지도부에게 일임하는 것을 여기서 만장일치로 결정한다.44)

북경 『인민일보』의 9·3 사설로 일본공산당의 내부투쟁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으나 주류파가 4전협을 통해 무장투쟁론을 제기하자 다시 내부의 분파투쟁이 재현되었다. 더구나 이번의 분파투쟁은 1951년 4월 23일 전국 30 곳에서 실시된 지방선거를 통해 격렬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준 충격은 이전에 조직내부에서만 이루어진 투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였다. 지방선거에서 주류파는 민주민족통일전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진보진영의 도쿄도(東京都) 지사 후보에 사회당의 가토 간주(加藤勘十)를, 오사카부(大阪府) 지사에 역시 사회당의 스기야마 모토지로(杉山元治郎)를 추천하였다. 그러자 비주류파는 사회당과의 무원칙한 연합전선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들 후보들은 미국에 대한 태도가 애매하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양파의 대립은 결국 선거과정에서 서로를 비판하는 형태로 대중 앞에 표출되었다. 이러한 내부의 분파투쟁은 선거 결과로 나타나 4월의 지방선거에서 의석수가 대폭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득표율도 20% 이상 줄었고 당원의 이탈도 심각하여 1년 전과 비교하여 조직원의 규모도 1/3로 줄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코민포름은 1951년 8월 10일 자신들의 기관지 『영구적 평화와 인민민주주의를 위하여』에 「분파주의자들에 대한 투쟁에 관한 결의」에 대하여(「分派主義者にたいする闘争にかんする決議」<sup>45)</sup>를 게재하여 50년 1월 5일 「일본의 정세에 대해

44) 日本共産党第四回全国協議会「分派主義者にかんする決議」(1951.3.21.)『日本共産党五〇年問題資料集』3, pp.39-40. 이 결의문은 4전협의 결과 발표한 것이나 『당활동지침(党活動指針)』 1951년 3월 21일자에 게재되었다. 따라서 괄호안의 숫자는 게재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45) 『日本共産党五〇年問題資料集』3에 있는 관련 자료를 보면, 4전협에서 일본공산당 제4회 전국협의회 명의의 발표한 자료의 명칭은 앞의 각주 42에서 언급한 것처럼 「分派主義者にかんする決議」로 되어 있으며, 이 자료는 1951년 3월 21일자 『당활동지침(党活動指針)』에 게재된 것이다(p.40 참조). 그런데 같은 자료집 172쪽에 있는 코민테른의 사실 자료에는 명칭이 「分派主義者にたいする闘争にかんする決議」<sup>45)</sup>로 되어 있다. 이 자료의 본문에 서술된 내용을 보면 두 자료의 명칭은 다르지만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코민테른이 자신들의 사실을 작성할 때 인용을 잘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문에서는 원자료의 표기를 그대로 사용한 만큼 서로 다른 자료로 인식될 수도 있으나 둘은 동일한

여]에서 일본공산당의 주류파를 비판한 것과는 정반대의 태도 즉 이번에는 비주류파의 행동을 분파주의로 비판하면서 주류파가 4전협에서 밝힌 분파주의자에 대한 처분방침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코민포름의 태도 역시 중국공산당이 9·3사설에서 보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 즉 50년 7월 7일자 『인민일보』 사설 「일본인민 투쟁의 현황」에서는 일본공산당 주류파를 비판하였지만 9·3사설에서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인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코민포름이 이 사설을 발표하기 직전의 모스크바 상황을 잠시 살펴보자.

GHQ의 탄압이 강력해지자 중국으로 피신하여 지하지도부를 형성한 일본공산당 주류파 간부 토쿠다 큐이치, 노사카 산조, 니시자와 타카지(西沢隆二)의 3명은 51년 5월부터 모스크바 근교에 있는 스탈린의 별장을 3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이후에 ‘51년 강령’이라고 불리는 일본공산당의 새로운 강령을 상호 협의하였다. 신강령의 초안이 완성되자 일본공산당 국제파(비주류파)에 속하는 하카마다 사토미(袴田里見)를 포함하여 4명은 51년 8월 상순에 다시 이 별장을 방문하였다. 여기에는 소련공산당의 최고 수뇌부와 중국공산당 국제부장 왕짜상(王稼祥)이 동석하였다. 이때 이루어진 회의는 일본공산당에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소련과 중국 공산당 수뇌부의 입회하에 일본공산당의 새로운 강령을 상호 협의하고 승인하는 자리였다. 특히 강령 내용의 작성단계에서는 배제되었던 비주류파의 인물을 최종적인 승인단계에 참석시킨 것은 이후에 신강령에 대한 반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인다. 여기에서 승인된 강령은 ‘폭력혁명 달성을 위해 일본공산당은 그 침병이 되어야한다고 지령한 것과 다름없는 과격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지령의 배후에는 교착상태에 빠진 한국전쟁에서 군사개입을 하고 있던 소련과 중국의 후방지원 세력으로 일본공산주의 진영이 단결하여 일본을 전쟁기지로 삼고 있는 미군을 교란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었다. 이러한 의도를 뒷받침하는 것이 이 별장에서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 스탈린은 ‘미점령군이 일본의 모든 곳에서 건디기 힘든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애국세력의 통일전선 구축을 생각해야만 한다’고 강조한 사실이다.<sup>46)</sup>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코민포름의 1951년 8월 10일자 사설은 한국전쟁의 상황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설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코민포름 사설로 돌아가자. 코민포름은 다음과 같은 사설을 발표하여 일본공산당 주류파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비주류파를 분파주의자라고 비판하였다.

자료임을 밝힌다. 그리고 코민테른의 사설 발표일자가 『전후 일본의 공산당사』에서는 8월 12일로 표기되어 있거나 자료집에는 8월 10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자료집의 날짜를 기준으로 했다.

46) 齋藤勉(2001), 앞의 책, pp.236-239

일본공산당 제4회 전국협회의 「분파주의자에 대한 투쟁에 관한 결의」는 의심할 바 없이 당의 전열 강화와 단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당의 이익을 무시하고, 당의 규율을 홀트리고, 당의 통일을 파괴하는 일부 공산당원의 분파활동은 미일 반동에게 이익을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공산당이 당내 투쟁 때문에 약화되고 일본인민의 해방투쟁의 선두에 서지 못한다면 기뻐할 자는 일본인민의 적뿐이다.<sup>47)</sup>

코민테른의 사실 발표로 비주류파는 더 이상 자신들의 주장과 조직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이들은 「코민포름 논평에 관한 결의(コミンフォルム論評に関する決議), 「당 통일에 관한 코민포름 논평과 우리들의 태도(黨統一に関するコミンフォルム論評とわれわれの態度)」, 「나는 분파와 모든 관계를 끊고 분파 근절을 위해 투쟁한다(私は分派と一切の關係を断ち分派根絶のために闘争する)」 등을 발표하고 분파활동의 종료를 선언하였다. 이렇게 되자 일본공산당 주류파는 51년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도쿄에서 비밀리에 제20회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민족해방 민주통일전선에 대한 결의(民族解放民主統一戦線についての決議)」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이 결의는 「일본공산당의 당면한 요구-새로운 강령-(日本共産党の当面の要求-新しい綱領-)」으로 제시되었다. 물론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류파가 51년 5월부터 스탈린의 별장에서 논의를 거쳐 작성하여 8월 초순에 소련과 중국 공산당의 간부가 입회한 가운데서 승인받은 것이다. 신강령의 개괄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쟁 후 일본은 미제국주의자의 연속 하에 놓여서 자유와 독립을 잃어버리고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상실하였다.……미제국주의자는 일본을 새로운 침략전쟁에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파멸시켜 무력(無力)하게 하려고 한다.……일본의 해방과 민주적 변혁을 평화로운 수단에 의해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일본을 노예상태에서 해방하고 국민을 궁핍한 상태에서 구하기 위해서는……국민의 진지한 혁명적 투쟁을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모든 진보적인 세력의 민족해방민주통일전선이다.……일본공산당은 이 민족해방민주통일전선을 신속하게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모든 진보적인 사람들과 특히 노동자와 농민에게 호소한다.<sup>48)</sup>

신강령은 ‘일본의 해방과 민주적 변혁을 평화로운 수단에 의해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미국의 식민지 상황에 놓인 일본의 민족해방을 무엇보다

47) 「‘分派主義者にたいする闘争にかんする決議について’(1951.8.10.)『日本共産党五〇年問題資料集』3, p.173

48) 日本共産党「日本共産党の当面の要求-新しい綱領-」(1951.8.)『日本共産党戦後重要資料集』第一卷, pp.619-625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중심세력인 노동자, 농민뿐만 아니라 “중소 실업가와 그리고 많은 기업가나 대상인도”<sup>49)</sup> 참가하는 민족해방민주 통일전선을 결성하고 ‘국민의 혁명적 투쟁조직’을 결성하라고 강조한다. 이후 51년 10월 16일부터 17일 사이에 개최된 제5회 전국협의회는 이 신강령을 정식으로 채택하여 일본공산당의 무장투쟁노선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 4. 결론

GHQ의 정치범 석방조치로 감옥에서 나온 토쿠다 큐이치 등 일본공산당 간부는 연합군을 ‘해방군’으로 인식하고 미군 점령 하에서 혁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냉전이 심화되자 미국은 1948년 1월 6일에 로얄선언을 발표하고 대일점령정책을 변경하여 일본을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방벽으로 삼았다. 그러자 일본공산당은 일본의 민주주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수주의에 대항하는 모든 민주세력이 결집하여 민주민족전선을 형성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여전히 일본공산당은 미국의 점령정책 변경에 대한 비판을 행하지 않았으며 냉전으로 변해가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코민테른은 1950년 1월 6일 「일본의 정세에 대하여」를 통해 노사카이론을 비판하였다. 그러자 일본공산당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비주류파와 이를 반대하는 주류파로 분열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격심한 당내투쟁을 겪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공산당이 「일본 인민 해방의 길」을 발표하여 재차 노사카이론을 비판하자 주류파는 외부 공산당의 의견을 수용한다. 주류파의 독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비주류파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소련과 중국 공산당의 의견이 자신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자 주류파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여간다. 이 때문에 일본공산당은 당내 분열과 분파투쟁이 더욱 심해진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중국공산당은 1950년 9월 3일 「지금이야말로 일본인민은 단결하여 적에 대항해야할 시기다」를 발표하여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본을 식민지화하고 군사기지화 하고 있는 만큼 일본공산당은 코민포름 비판 이후 오류를 수정한 주류파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미국과 대결하라고 권고한다. 중국공산당의 지시로 인해 당내의 헤게모니와 정통성을 장악한 주류파는 급작스럽게 무장투쟁노선을 제기한다. 이러한 주류파의 움직임은 비주류파가 극좌모험주의라고 비판하면서 다시금 당내 분열이 심해지자 1951년

49) 같은 자료, p.625

8월 10일 코민포름은 「분파주의자들에 대한 투쟁에 관한 결의」에 대하여를 통해 비주류파를 분파주의자로 비판하고 주류파가 제기한 분파주의자에 대한 처분방침을 지지하였다. 이처럼 소련과 중국 공산당이라는 외부의 힘이 일본공산당의 조직분열과 분파투쟁을 좌지우지 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결국 처음에 외부의 힘에 의해 비판받던 주류파가 동아시아의 냉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한국전쟁의 격화 속에서 다시금 외부의 힘에 의해 옹호받자 일본공산당의 분파투쟁은 종료된다. 그리고 일본공산당 주류파는 1951년 8월 제20회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본공산당의 당면한 요구-새로운 강령」을 제시하고 10월에 개최된 제5회 전국협의회에서 이를 정식으로 채택하여 무장투쟁노선을 공인하였다.

냉전을 계기로 하여 개시된 소련과 중국 공산당의 일본공산당 비판은 일본공산당의 전략전술을 변경하여 일본 내에서 미국에 대한 투쟁을 격화시키고 한반도에서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이 비판은 일본공산당 내의 분파투쟁을 격화시켜 결과적으로 미국을 교란시켜야할 역할을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외부의 힘은 일본공산당 주류를 옹호하는 형태로 비판의 논리를 변경하였다. 때문에 처음에 외부의 비판을 수용한 비주류파는 오히려 외부의 비판에 대한 대립물이자 일본공산당 내부에서 통일을 저해하는 세력으로 위치가 바뀌어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류파가 미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방침(무장투쟁)을 선언하면서 주류파는 초기에 자신들을 비판한 외부 세력을 자신들을 지지하는 형태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냉전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일본공산당의 전략은 ‘점령하 평화혁명론’에서 전쟁까지 일본에서 미군을 교란시키는 무장투쟁론으로 변경되었다.

냉전의 과정에서 자국에 유리한 정치적 전개를 꾀한 외부세력은 결국 일본공산당을 비주체적으로 만들었으며 혼란에 빠트리고 극좌모험주의라는 잘못된 전술을 채택하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일본공산당의 외부 권위 추종주의(≒비주체성), 외부 의존적 체질, 권위주의와 조직 내 민주주의의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한 체질은 조직분열과 분파투쟁을 격화시켜 패전 직후의 대중적 지지를 잃어버리는 원인이었다.

## 【참고문헌】

### 1. 사료

神山茂夫編著(1971)『日本共産党戦後重要資料集』三一書房

社会運動資料刊行会(1951)『日本共産党資料大成』社会運動資料刊行会

日本共産党中央委員会五〇年問題文献資料編集委員会編(1981, 제2판)『日本共産党五〇年問題資料集』新日本出版社

「戦後史しの激動」 <https://sengoshi.blog.ss-blog.jp/1948-01-06>(검색일 2020년 2월 18일)

2. 연구서

고야마 히로타케 저·최종길 옮김(2012)『전후 일본의 공산당사』어문학사  
萩原遼(1997)『朝鮮戦争』文芸春秋  
小山弘健(1972)『戦後日本共産党史』加賀書房  
斎藤勉(2001)『スターリン秘録』産経新聞社  
思想の科学研究会(1960)『共同研究転向』平凡社  
下斗米伸夫(2011)『日本冷戦史』岩波書店  
鈴木英生(2009)『新左翼とロスジェネ』集英社  
外山恒一(2008)『青いムーブメント -まったく新しい80年代史-』彩流社  
立花隆(1979)『日本共産党の研究』講談社  
福富健一(2019)『日本共産党の正体』新潮社  
藤田省三(1975)『転向の思想史的研究』岩波書店  
不破哲三(2006)『日本共産党史を語る』新日本出版社  
歴史科学協議会(2000)『日本現代史』青木書店  
J. ヴィクター・コシュマン(2011)『戦後日本の民主主義革命と主体性』平凡社

3. 연구논문

최종길(2013)「이시모다 쇼의 민족담론」『일본학』제37집  
黒川伊織(2016)「戦後日本共産党研究の現段階」『第三次 季刊 現代の理論』第8号  
福家崇洋(2013)「京都民主戦線についての一試論」『人文学報』第104号, 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

---

논문투고일 : 2020년 03월 16일  
심사개시일 : 2020년 04월 17일  
1차 수정일 : 2020년 05월 05일  
2차 수정일 : 2020년 05월 12일  
게재확정일 : 2020년 05월 20일

---

## 냉전의 전개와 일본공산당의 혁명노선 변경

최종길

냉전을 계기로 하여 개시된 소련과 중국 공산당의 일본공산당 비판은 일본공산당의 전략전술을 변경하여 일본 내에서 미국에 대한 투쟁을 격화시키고 한반도에서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이 비판은 일본공산당 내의 분파투쟁을 격화시켜 결과적으로 미국을 교란시켜야 할 역할을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외부의 힘은 일본공산당 주류를 옹호하는 형태로 비판의 논리를 변경하였다. 때문에 처음에 외부의 비판을 수용한 비주류파는 오히려 외부의 비판에 대한 대답물이자 일본공산당 내부에서 통일을 저해하는 세력으로 위치가 바뀌어버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류파가 미국에 대한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선언하면서 주류파는 초기에 자신들을 비판한 외부 세력을 자신들을 지지하는 형태로 변화시킨다. 즉 냉전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일본공산당의 전략은 점령하 평화혁명론에서 전쟁까지 일본에서 미군을 교란시키는 무장투쟁론으로 변경되었다.

냉전의 과정에서 자국에 유리한 정치적 전개를 꾀한 외부세력은 결국 일본공산당을 비주류적으로 만들었으며 혼란에 빠트리고 극좌모험주의라는 잘못된 전술을 채택하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일본공산당의 외부 권위 추종주의(=비주류체성), 외부 의존적 체질, 권위주의와 조직 내 민주주의의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한 체질은 조직분열과 분파투쟁을 격화시켜 패전 직후의 대중적 지지를 잃어버리는 원인이었다.

## Development of Cold War and Revolutionary Route of the Communist Party of Japan

Choi, Jong-Gil

For The criticism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itiated after the Cold War, was raised in order to change the strategic tactics of the Communist Party to intensify the struggle against the United States in Japan and prepare for a war on the Korean Peninsula. But this criticism intensified the sectarian struggle within the Japanese Communist Party, and as a result did not play a role in disturbing the United States. The external forces then changed the logic of criticism in the form of defending the mainstream of the Communist Party of Japan. Thus, the non-mainstream, which initially embraced external criticism, turns into an opposition to external criticism and a force that hinders unification within the Communist Party. In this situation, as the mainstream declares an active armed struggle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 mainstream transforms external forces that initially criticize them into a form of support for them. In other words, during the Cold War, the Communist Party's strategy was changed from occupied peace revolution to armed struggle that disrupted US troops in war base Japan.

External forces, which pursued political development in favor of their country during the Cold War, eventually made the Communist Party unsubjective, contributing to the confusion and giving rise to the wrong tactics of extreme leftistism. In addition, the constitution, which failed to escape the lack of external authority followingism, external dependence, authoritarianism and democratic democracy in the Communist Party, was the cause of deepening organizational divisions and sectarian struggles, resulting in the loss of public support immediately after the defeat.